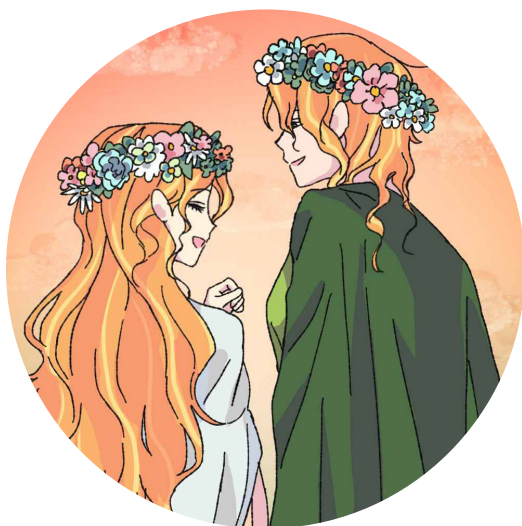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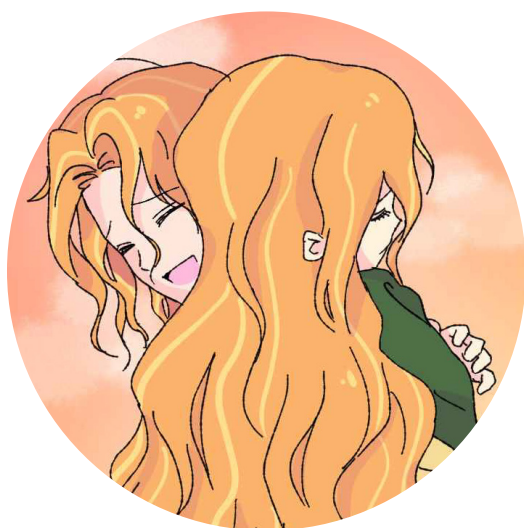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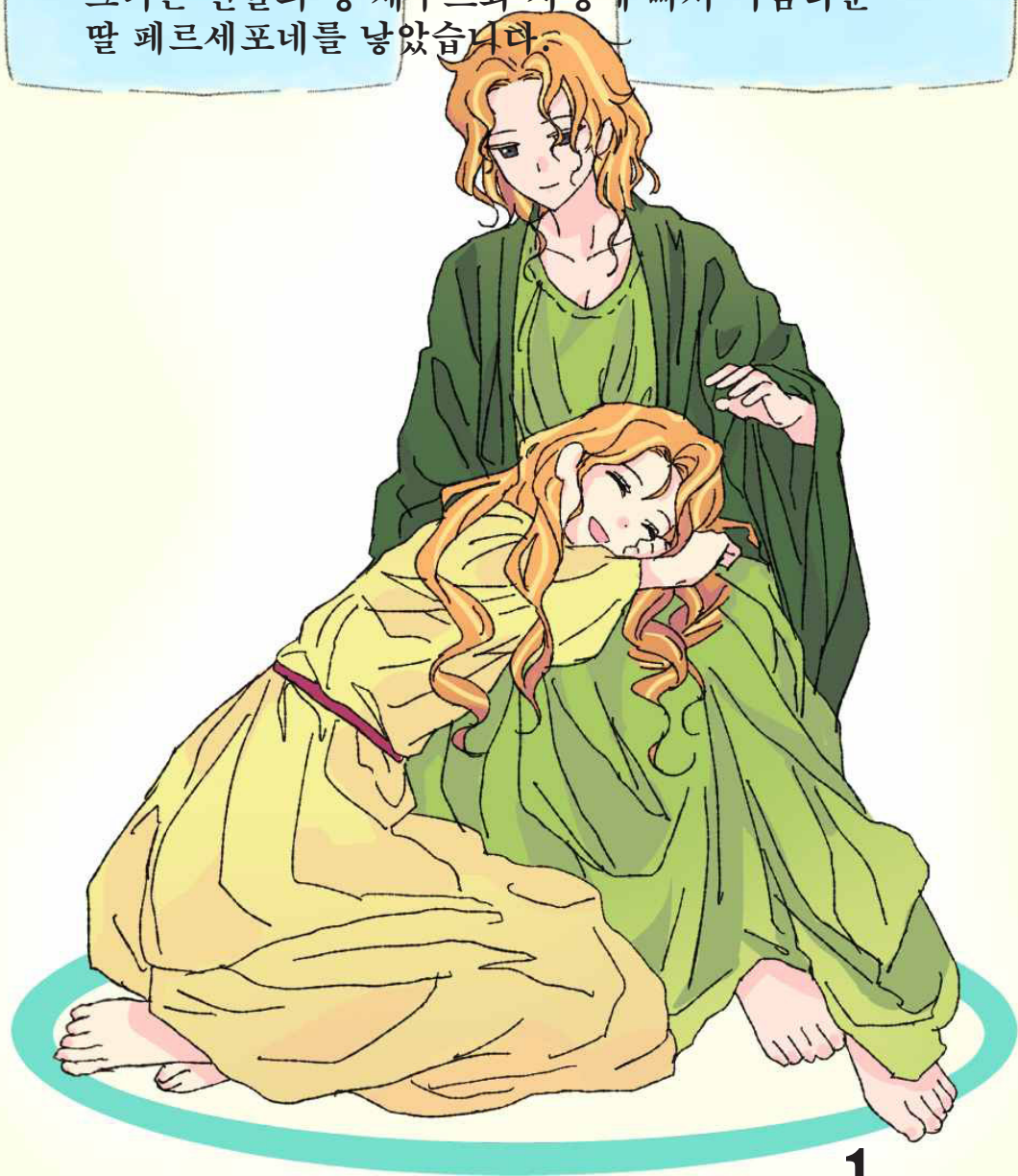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글 남민지
그림 김송민, 이현진





옛날 옛적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사랑에 빠져 아름다운
딸 페르세포네를 낳았습니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꽃밭에서 놀고싶어요."

"그러렴, 나의 사랑하는 딸."



"페르세포네,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오랜만에 지상에 올라온 하데스는 아름다운 페르세포네의 미모에 반해버렸습니다.

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위해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까악!! 도와주세요 엄마!"

"하하하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데메테르는 딸을 찾기위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내 딸,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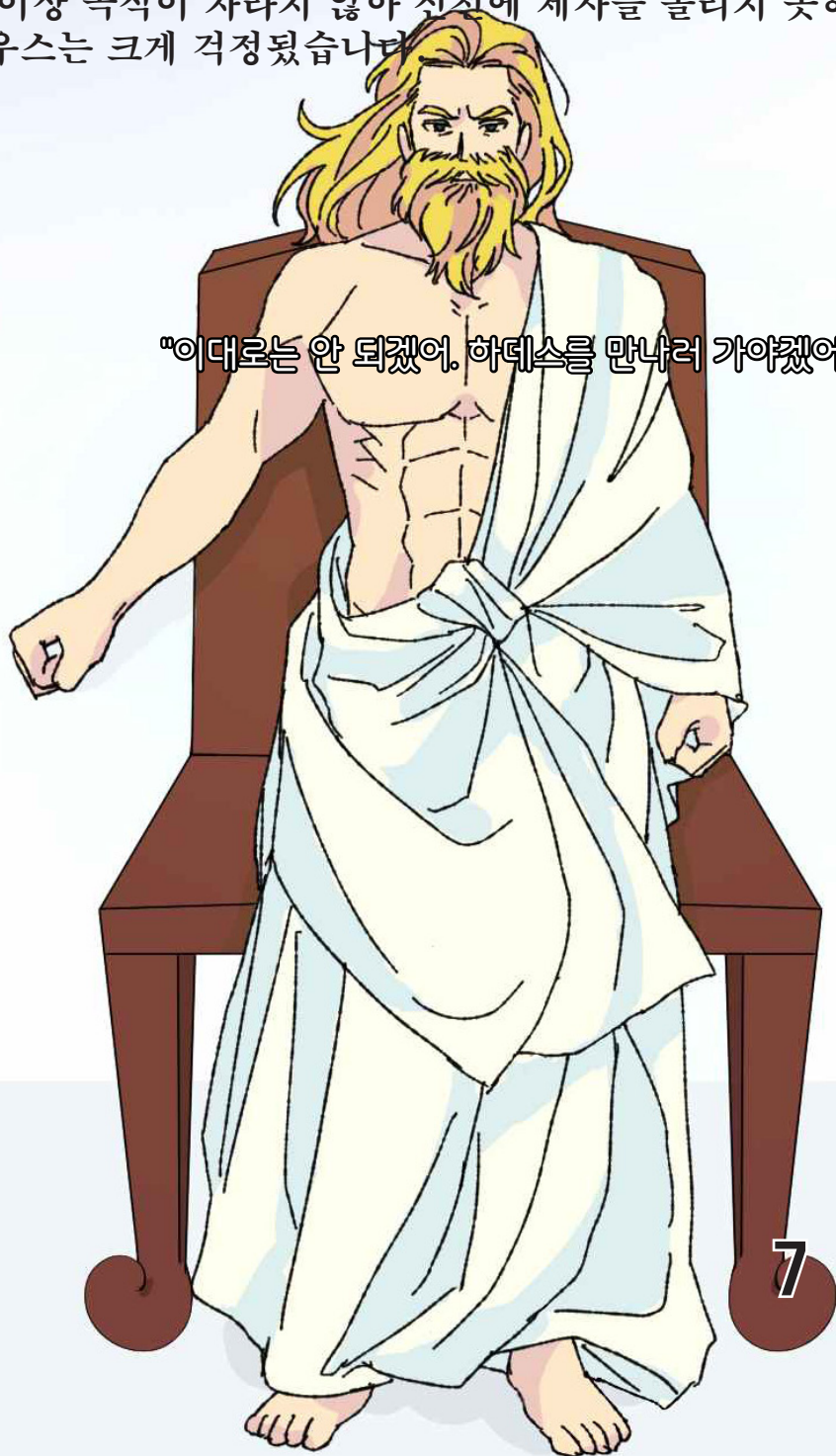
"흑 흑 내 딸아, 페르세포네야 페르세포네야.."



데메테르는 슬픔에 잠겨 자신의 일인 농업을
내팽거렸습니다.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않아 신전에 제사를 올리지 못하자
제우스는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데스를 만나러 가야겠어."



제우스는 하데스를 찾아가 페르세포네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데스, 이만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줘."

하데스는 제우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보내주겠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의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권했습니다.

"이 석류를 먹어보렴. 아주 맛있단다."

"그럼, 아주 조금만이에요..."

결국 페르세포네는 석류를 먹고 저승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데메테르, 곧 페르세포네가 돌아올 거야"

"딸, 이제 볼 수 있겠구나..!"



"여름과 가을은 너와 함께 보낼수 있겠구나."

하지만 석류를 먹은 페르세폰네는 매년 일정 기간은 하데스와,
나머지는 데메테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져 있는 동안, 데메테르는 거울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페르세포네, 네가 없는 거울은 너무 춥구나..."



데메테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엘뤼시스 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사랑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사랑과 희생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